

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, 그 즉시 멸해 버려라

본 문 마태복음 4장 1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의 역사가
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전초>

◎ 성자와 주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며
 <용서의 말씀>을 전해 주신 후,

그다음에 <깨끗한 몸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>을 말씀해 주시며
2015년을 ‘주의 뜻’ 을 달고
새롭고 온전하게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.

그리고 <생명의 뜻>을 이루고 <휴거의 뜻>을
온전히 이루도록 ‘절호의 기회’ 를 주셨습니다.

◎ 지난 주 주일에

<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‘뇌’ 를 사용하는 방법>과

<육 성장, 정신 성장, 행동 성장을 하여 온전하게 되는 방법>에 대해

더 할 수 없이 충분히 말씀해 주었지요?

- ◎ 오늘은 <자기 생각>을 주관하여
사탄도 이기고, **악**도 이기고, **불의**도 이기도록
 썰기를 박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- ◎ 지난 주 주일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<3편 말씀>입니다.
 곧 <**사탄과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멸하는 방법**>에 대한 말씀입니다.
- ◎ 오늘은 핵심만 탁탁 치면서 말씀합니다.
 한 문장, 한 문장 모두 ‘핵’ 이 들어가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.
- ◎ 설교자들이 ‘성자와 분체의 능력’ 으로 권세 있게 외쳐 줄 테니,
듣는 여러분들도 말씀 한 문장, 한 문장을
뇌에 깊이 꽂으면서 듣기 바랍니다.

그러면 말씀을 듣는 즉시

사탄도, 악도, 불의도 멸할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◎ <**사탄과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멸하는 방법**>을 말씀해 주기 위해
 먼저 <**마음과 생각**>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- ◎ <사람>은 왜 사람일까요?
 이렇게 말하니,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요?
 성자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◆ 사람이 왜 <사람>이나?

‘마음과 생각’ 이 있어서 사람이다.

‘형체’ 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.

<시체>도 ‘형체’ 는 있다.

그러나 <죽은 자, 시체>는 ‘마음과 생각’ 이 없다.

◆ <사람>은 ‘마음, 생각, 혼, 영’ 이 있다.

이들이 살아서 생각하고 행하니, <사람>이다.

◆ ‘형체’ 만 있고

‘마음과 생각’ 이 기능을 못 하면, <사람>이 아니다.

(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 <끝>

◆ 바람도 불지 않으면 <바람>이 아닙니다.

그것은 <하나의 공기>입니다.

<사람>도 ‘마음 · 정신 · 생각’ 이 가만히 있으면,

숨만 쉬는 <하나의 공기 같은 존재>로만 됩니다.

바람이 불듯 ‘마음 · 정신 · 생각’ 이 움직이며 기능을 해야

“마음이 물결 같다. 파도 같다. 정신이 칼 같다.”

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‘찬 공기’와 ‘더운 공기’가 부딪혀야 <바람>이 불고,
<강풍>도 불고, <태풍>도 불게 됩니다.

이와 같이 ‘인간의 마음’과 ‘삼위일체의 마음’이 일체 돼야
바람 불고, 태풍 불고, 천둥 번개 치듯
<무섭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>가 일어납니다. <끝>

- ◆ ‘자기 마음’이 ‘삼위일체의 마음’과 부딪혀 만나야 됩니다.
그래야 <기적의 역사>가 일어나 <밭에 묻힌 보화>를 찾게 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<네 생각>이 가만히 있으면,
<마음의 바람>이 불지 않아서 <역사>가 일어나지 않는다.

<네 생각>을 놀리지 말고 움직여 생각해라.

그리고 <네 몸>과 함께 부지런히 다니면서 행하여라.

그러면 눈으로 보고, 느끼고, 현실과 부딪혀 얻게 되고,
<돌풍 치는 기적의 역사>까지 일어난다.

- ◆ 생각해야 <놀라운 역사>가 일어나고 <얻을 것>을 얻는다.
행해야 <놀라운 역사>가 일어나고 <얻을 것>을 얻는다.

- ◆ 가만히 있으면 ‘마음’이 이리저리 흘러간다.
그러니 ‘별의별 생각’이 다 든다.
<마음과 생각>을 때려잡아야 된다.

- ◆ 자기가 <못된 생각>, <삼위의 법을 벗어난 생각>을 하면,
 “이 잡놈 마음아. 내 그냥 안 듣다.” 하면서
 뱀 잡듯, 질항아리 깨뜨리듯, 가라지를 불사르고 잡초를 뽑듯
<나 성자의 말씀의 도끼>로 확 찍어 없애라.

(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 여기서부터 더욱 중요

- ◎ 지금부터 <사탄, 악, 불의를 멸하는 방법>을
 핵심만 탁탁 치면서 말씀하겠습니다.

정~말 잘 듣고 ‘능력과 권세’를 받기 바랍니다.

- ◆ 생각하는 대로 <뇌신경과 몸 신경>이 느끼고,
 생각하는 대로 <몸>이 움직여집니다.
- ◆ ‘<생각>을 잘하기’입니다!
 ‘<그릇된 생각>을 다스리기’입니다!
 ‘<그릇된 생각>을 뱀 잡듯 잡기’입니다!
 ‘<그릇된 생각>을 질항아리 깨뜨리듯 깨뜨리기’입니다!
 ‘<그릇된 생각>을 잡초를 뽑듯 확 뽑아내기’입니다!
- ◆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 “생각이 ‘불의’로 길들여지면 ‘불의’를 좋게 생각하게 되고,
 그것이 <체질>에 배어 ‘불의’를 좋아하며 행하게 된다.

<그릇된 생각>을 절제해라. 멀해라!” (하셨습니다.)

- ◆ 선생도 <그릇된 생각>을 절제하고 멀하니,
되가 즉시 <좋은 생각>으로 쏠려서
그 시간에 ‘성자의 계시’를 받아써서 100권의 책의 책을 썼습니다.
- ◆ <불의한 생각>을 꺾으면 ‘승리하는 길’로 가집니다.
- ◆ <불의한 생각>을 멸한 것이 ‘사탄, 마귀, 귀신’을 멸한 것입니다.
- ◆ <불의한 생각>을 꺾고 멸하는 자는
그 시간에 ‘천국의 길’을 질주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<불의한 생각>을 없앨 때는 ‘타이밍’이 매우 중요합니다.

<불의한 생각>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,
그 즉시!! 짓뭇개 버려야 됩니다.

<불의한 생각>이 아주 작더라도 그대로 두면,
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를 덮치기 때문입니다.

- ◆ <불의한 생각>이 조금이라도 올 때,
그 즉시!! 확~ 뺏아 없애고 짓뭇개 없애기입니다.

이렇게 하는 자는 ‘대승리자’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선생도 <불의한 생각>이 들기 시작할 때
그 생각이 더 크기 전에 짓뭇개 없애 버렸습니다.

그랬더니 그 즉시 ‘성자’가 생각나서 성자를 불렀습니다.
그랬더니 성자는 “내가 곧 갈게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기다리니, 성자는 <오늘 말씀>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

“<불의한 생각>을 짓뭇고 이기는 자는
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에게 속한 자’ 다.

매일 이겨라! 매시간 <생각>을 다스리고 이겨라.”

하셨습니다. <끝>

- ◆ <생각>은 보는 것, 듣는 것,
몸이 닿는 것, 행하는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.

고로 봐도, 들어도, 몸에 닿아도, 행해도 <생각>을 다스려야 됩니다.

- ◆ <자기 생각>을 자기 마음대로 의롭게 하지 못하면
‘사탄, 마귀, 귀신의 주관’을 받게 됩니다.

<자기 생각>을 다스리면서 <불의한 생각>을 짓뭇개면,
<사탄>도 짓뭇개 없애 버린 격이 됩니다.

그래서 <자기 생각>을 다스리는 자가 <사탄>을 다스리는 자이며,
<자기>를 이기는 자가 <사탄>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<불의한 생각>은 마치 ‘지렁이만 한 뱀 새끼’가 커서 자기 몸을 휘감고 물어 죽이는 ‘독사’가 되듯, 그와 같이 됩니다.

고로 <불의한 생각>이 왔을 때 그 즉시!!

뱀 새끼를 잡아 없애듯 짓뭉개 없애 버리기입니다.

- ◆ <생각>을 다스리는 ‘성자와 성령님의 마음’ 갖기를 축원합니다.

<끝>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◎ 더 깊이 말씀합니다.

잘 듣고 <사탄과 악과 불의를 멸할 능력과 권세> 받기를 바랍니다.

- ◆ 사람들은 ‘같은 파장의 대상자들’입니다.

고로 누가 <불의한 생각>을 하면,

마치 ‘바람’을 타고 ‘나쁜 공기’가 자기에게 오듯

<불의한 생각의 파장>이 자기에게 전해져 옵니다.

고로 <불의한 생각>이 조금이라도 오면, 그 즉시 멸해야 됩니다.

어떻게 멸할까요?

(* 화면을 보면서, 성자의 귀한 말씀을 들겠습니다.) <영상5> 중요

- ◆ <이성의 마음>도, <음란한 마음>도

‘바람’을 타고 ‘나쁜 공기’가 와서 ‘코’로 들어오듯,

‘파장’을 타고 ‘자기 마음과 생각’으로 들어온다.

‘나쁜 공기’가 ‘자기 코’로 들어오면,
즉시 코를 막고 공기를 환기시키듯이,
즉시 ‘이성의 파장과 음란한 파장’을 저주하면서 말해라.

그러면 그 순간 <뇌의 파장>이 뒤바뀌어 버린다.

이는 마치 밤중에 도둑이 문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에
갑자기 문을 확 여니
도둑의 머리가 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
10층에서 떨어지는 격이 된다.

그리함으로 <불의한 마음>도 떨어지고,
<사탄과 귀신>도 떨어져 박살 나 속 시원하게 없어진다.

그리함으로 방에서 <나 성자>와 함께 ‘사랑의 잔치’를 하게 된다.

이것을 못 하면, <사탄>과 함께 ‘불의의 잔치’를 하여
생명의 길,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. <끝>

(* 다시 화면을 보면서,
계속해서 성자의 말씀을 들겠습니다.) <영상6> 중요

- ◆ <불의한 생각>이 왔을 때
‘어떻게 할까?’ 생각하며 멍청하다가는
<불의한 생각>을 박살 낼 기회를 놓친다.

<불의한 생각>이 오는 즉시!

그 생각을 확 밀쳐서 바위 절벽 밑으로 내던져 버려라. <끝>

(*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성자의 말씀을 듣고

말씀 마치겠습니다.) <영상7> 중요

- ◆ 강도가 밤중에 벽을 타고 네 방의 창문으로 올라오고 있다.

그런데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으면,
네가 좋아하는 줄 알고 강도가 이불 속에 들어와서
“너,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?

그러니까 내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었지?” 하며,
자기 할 짓 다 하고, 네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간다.

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,
네 입을 쇠 실로 바느질해서 껌매 놓고 간다.

- ◆ <불의한 생각>이 났을 때

즉시 자르지 않고, 짓밟개지 않고, 멸하지 않고
가만히 두면서 용납하는 자는 이와 같이 ‘불의’에게 당하고 만다.

- ◆ 강도가 벽을 타고 올라와 네 방의 창문을 열기 전에
뜨거운 물을 붓든지, 쇠몽둥이로 머리를 후려치든지 해라.

<불의한 생각>이 났을 때 그 즉시 잘라라! 박살 내라! 멸해 버려라!
그러면 나 성자를 만나서 ‘기쁨과 의와 사랑의 잔치’를 하게 된다.

<끝>

- ◎ 오늘 말씀을 통해 <불의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>를 받았지요?

꼭 ‘그 능력과 권세’를 써먹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.

- ◎ 말씀 마쳤습니다.

(* <설 명절>을 안 맞는 나라들은 위와 같이 말씀을 마친다.)

(* <설 명절>을 맞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이 말씀을 마친다.)

◎ 이번 주에는 ‘설 명절’ 을 맞게 됩니다.

-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고,
 -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마음을 붙들고,
 - 신부로서 자기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,
 - 성자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
- 성자와 함께 ‘행복한 사랑의 명절’ 보내기를 바랍니다.

선생도 그리할 테니까요.

<신부>는 신랑과 ‘심정 일체, 행동 일체’ 입니다.

◎ 오늘 말씀을 통해 <불의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>를 받았지요?
꼭 ‘그 능력과 권세’ 를 써먹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.